

산업보건 주요뉴스

울산 혁신도시에서 새롭게 출발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4.16.(수) 개청식, 4대 사회보험 기관 중 첫 지방 이전 -

근로복지공단은 4.16.(수) 14시, 울산 혁신도시 신청사(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40) 1층에서 개청식을 가졌다.

공단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지난 3월 말 울산 혁신도시 신청사로 본사를 이전하여, 현재 400여 명의 직원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번 이전은 4대 사회보험 기관 중 첫 번째로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사례이다. 울산 혁신도시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전보건공단에 이어 세 번째다.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연면적 22,623㎡)로, 2012년 1월에 착공된 지 2년 만인 지난 1월에 준공됐다.

‘2015 서울 국제산업보건대회’ 준비 박차

안전보건공단이 내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국제산업보건대회’의 본격적인 준비 체제에 들어갔다.

전 세계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3년마다 개최되는 ‘국제산업보건대회’는 100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적 규모의 행사로, ‘산업보건 분야의 올림픽’으로 불린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내년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6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전 세계 산업보건 전문가들이 모여, 산업보건관련 최신 국제동향과 연구결과 등에 대한 심포지엄과 정책포럼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전 세계 120개국에서 산업보건 전문가를 비롯해 국내외에서 약 3,4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약 6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4. 14(월) 울산 본부에서 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회 사무국' 현판식을 통해 본격적인 대회 개최 준비에 나섰다.

공단은 그동안 노·사, 정부, 학계, 유관기관, 사업장 대표로 구성, 기조연설 등 대회 운영관련 의사결정 기구인 '국내조직위원회'와 학술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는 '국내학술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대회사무국은 이번 현판식을 계기로 '국내 조직위원회'와 '국내학술위원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조직위원회'와의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회사무국은 발표논문 등의 접수와 대회 참가등록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발표 주제 및 발표자, 좌장 등 선정, 공식 홈페이지 운영, 전시기획 등에 나섰다.

치과보철, 한방 첩약, 재활치료비 등 산재보험 요양급여 수가, 시장 가격을 반영하여 인상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

산재요양 근로자가 좀 더 편리하게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추가지급 공급기관이 민간업체로 확대되고, 치과보철료와 한방 첩약, 언어치료 등의 재활치료비 수가가 시장 가격과 자동차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 등을 반영하여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근로자의 편익을 높이고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을 개정하고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의 추가지급 기준 개선 및 품목 확대 관련

지금까지는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를 추가로 지급받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소속 산재병원이나 재활공학연구소에서만 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재활보조기구 98개 품목 중 국가표준이나 품질관리가 필요한 8개 품목을 제외한 90개 품목은 민간 재활보조기구 업체도 공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재활공학연구소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수·전동휠체어'와 '이동식 리프트 배터리 교환료' 등 산재보험으로 지원하는 재활보조기구 지급품목도 늘렸다.

• 치과보철, 한방 첩약, 재활치료비의 산재보험 요양급여 수가 인상 관련

국소의치 등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치과보철 항목 11종(평균 9.6%)과 한방 첩약(37%), 언어치료 등 6개 재활치료비(6.9%) 수가를 시장 가격과 자동차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 등을 반영하여 인상했다.